

학교주변 불량식품 기승... '어린이식품안전구역' 무색

'그린푸드존' 도입 17년 효과 미미 젤리·사탕 등 고열량 간식류 판매 성장기 아동·청소년 건강에 악영향 업무 자발적 참여 의존 효과 없어 '우수판매업소' 지원 확대 필요성



광주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간이 포장마차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찾은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에는 400~1500원 사이의 간식류가 매대에 빼곡히 진열돼 있었다. 합성착색료와 합성착향료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된 젤리와 사탕 등이 대부분이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매장 안으로 몰려들었고, 저마다 간식을 들고 집과 학원으로 향했다. 이들이 손에 쥔 것은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부족한 이른바 '불량식품'이다.

비슷한 시간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 입구의 간이 포장마차 업주는 붕어빵 만들기에 한창이다. 인기가 높은 간식거리이지만 당국의 관리 밖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다 보니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의 위생이 담보되지 않아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일선 학교 주변에서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식품판매를 금지하는 '그린푸드존'(어린이 기초식품보호구역)이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허가 식품류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008년 3월21일 제정된 어린이식

생활안전특별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내부와 경계로부터 200m 이내가 그린푸드존으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비위생적이거나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간식류의 경우 1회 제공량 당 열량 250kcal 초과, 단백질 2g 미만, 당류 17g 초과, 포화지방 4g 미만 식품은 판매가 제한된다. 학교 주변 무인점포 등지에서는 기준을 벗어난 식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푸드존이 도입 취지를 잃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데다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관내에는 각각 208개와 536개의 그린푸드존이 운영되고 있지만, 고열량·저영양, 고카페인 식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신청하는 '우수판매업소'가 광주 15곳, 전남 135곳에 불과하다. 이는 학교 매점까지 포함된 숫자다.

우수판매업소에는 조리 기구와 진열·판매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해주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우수판매업소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부족한 혜택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수판매업소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에서 고열량·저영양의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가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나머지 판매업소에는 마땅한 처벌 근거와 법적 책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그린푸드존에 대한 단속과 관리 강화,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 인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정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따른 혜택과 홍보가 부족해 그린푸드존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학교 인근 매장의 식품 안전 관리 강화를 비롯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

의 지원금 부여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 측은 우수판매업소 등에 대한 홍보와 지원 강화 등 그린푸드존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며 "그린푸드존 내에서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이정준 수습기자

국가인권위 "광주시교육청, 개인정보 유출 시정 권고"

청렴시민감사관 의견서 노출 지적

광주시교육청이 민원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로 국가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등' 진정 사건에 대해 '감사관실 직원

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할 것'을 광주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단체는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시교육청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들은 일부 청렴시민감사관들과 의견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포함된 성명과 단체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인지한 단체가 민원실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결국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교육청이 민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전달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할 경우 시민들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우리 단체의 민원서를 학교, 민간인 등에 원문 그대로 제공한 몇몇 사례에 대해서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는 행정기관이 원만한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직원들이 민원 처리 중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A씨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적힌 민원서류를 전달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단순히 인권위 권고를 따르는 데 그치지 말고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인권위와 단체의 주장에 시교육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5년 4월 1일 임시주주총회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3,000,000,000원 중 금7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 2,300,000,000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방법으로서 발행주식총수 306,000주중 70,000주를 희방하는 주주로부터 1주당 금10,000원에 매수 유상상각하여 총 발행주식 306,000주를 236,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구주권을 가지는 주주는 구주권을 본 회사에 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일
주식회사 차승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2(농성동)
대표이사 박현영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드론타임
스포츠행사 / 축제 / 산업현장 / 호텔 / 펜션
학교 / 부동산광고 / 분양 / 지적도
신박특수촬영 / 생산시설 / 양식장
아파트 / 교회
웨딩 / 이벤트 / (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징통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가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감사 파견 : 감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